

육바라밀과 행복

일타스님 이야기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기도〉〈보살의 마음 증생의 마음〉 등으로 출판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타스님(조계종 원로원)이 최근 이야기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불교시대사)를 내놓아 또다시 출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간 1주일만에 재판을 들어갈 정도다. 이처럼 〈집착을 버리면...〉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은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 '집착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변의 법칙을 체계해 행복하고 청정하며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집착을 버리면...〉은 일타스님이 20여년전부터 각종 법회장에서 설한 수많은 법문 가운데 보시·지계·인욕 등 육바라밀 수행의 참뜻만을 간추려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각 주제마다 경전에 수록된 일화와 교훈적인 세속 이야기를 먼저 설명한 다음,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때론 가슴 뭉클하게, 때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풀어내는 일타스님의 독특한 어투가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자리를 버리면 부처가 보인다' '불법의 핵심은 평등심' '우연은 없다' '신심으로 유혹을 뿌리쳐라' 등 각 장마다 펼쳐지는 소주제들을 가슴속에 새겨보는 것도 가외의 즐거움이다. 불교시대사, 200쪽, 1만원.

“왜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까 난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데”

김재진씨 어른들의 동화 '엄마의 나무'

꽃이 다 지기 전에 돌아 오겠다고 약속한 엄마를 기다리는 섬이아 구노. 구노는 엄마가 좋아하는 나무만을 그리며 엄마를 기다린다. 마음의 아픔을 잊고자 섬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구노와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시인이자 소설가 김재진(45)가 펴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엄마의 나무〉(샘터)의 줄거리이다.



김재진씨

소설속 주인공 아이인 구노는 저자의 아들 군호(12)가 모델이다. '동백꽃'과 '엄마' 그리고 '선생님'과 '기다림' 등은 어른들에게 고향 같은 포근함을 주는 소재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날/ 반짝이는 햇살이 다가와 아니라고 말했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

/ 아마것도 잃은 것 없고/ 어깨에 얹은 햇살이 내게 아니라고 말했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무소유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불교의 아픔을 잊고자 섬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구노와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시인이자 소설가 김재진(45)가 펴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엄마의 나무〉(샘터)의 줄거리이다.

선생님은 지붕끝에 풍경이 달려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묻는다. "달랑거리는 방울 소리는 바람이 우는 걸까요? 풍경이 우는 걸까요?" 아무 답도 하지 않는 구노에게 선생님은 "마음이야"라고 대답한다. 그 순간 구노는 선생님에게 되묻는다. "선생님 마음은 어지럽겠네. 늘 그렇게 높이 매달려 있어야 하나까."

저자는 "구노가 맞는 답을 한 건지, 그리고 스스로 얼마만큼이나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수수께끼라는 질문법을 문학적 도구로 사용한다. 의도한 함정 속에 오답과 평답을 유도하고, 미처 예상치 못한 제3의 집안으로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른들에게 탐욕 잡착 어리석음 등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스스로 어둠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게 달라지는 법이다. "고통이 찾아올 땐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에 구노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



고통은 흔들면 흔들수록 더 커지는 것이야"라는 대답을 비롯 이 책속에서 주고받는 수수께끼는 모두 불교적이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을 때 어른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될까. 난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데?" 아마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런 어른들에게 이 책을 권해본다. 277쪽, 7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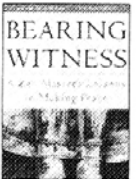
해외신간



▲선(禪)을 찾아서=화두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서 〈선을 찾아서(After Zen)〉가 출간됐다. 추리 소설가 이자 명상가이기도 한 베달링은 이 책에서 선사와 얽혀있는 많은 일화들을 토대로 화두의 본래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화두의 대부분은 미국의 불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두집 〈비스테리아 탱글(Wisteria Tangle)〉에서 채용하고 있다. Martins Pr. 출판. ISBN 0312204930



▲꽃망울 맺는 연꽃=틱낫한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34가지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는 〈꽃망울 맺는 연꽃(The Blooming of Lotus : Guided Meditation for Achieving the Miracle of Mindfulness)〉이 출간됐다. 틱낫한 스님은 이 책에서 매년 여름 프림리치 찾아온 각국의 불자들에게 가르쳤던 수행법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Beacon Pr. 출판. ISBN 080701123878



▲인내의 증거=평화=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길은 없을지. 미국에서 거리의 성자로 불리우는 글래스맨이 발간한 〈인내의 증거(Bearing Witness : A Zen Master's Lessons in Making Peace)〉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불교적 미덕을 이끌어 내고 있다. Random House 출판. ISBN 0609803913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남산스님 에세이집 '좋은인연 맺는 법'

파스요법을 창안해 교계에 널리 알려진 남산스님(양산 여래원장)이 산중 에세이 〈좋은 인연맺는 법〉을 내놓았다. 이 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 그러나 남산스님은 그속에서 좋은 인연 맺는 법을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좋은 인연맺는 법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 입장에 서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좋은 인연 맺는 법〉은 차원 높은 종교적 경지의 불사는 아니지만 주위를 깨끗하고, 부럽고, 원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자 남산스님, 이소경, 200쪽, 8천원.

불교미술서, '찾은 예술과 신앙'

강우방교수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

신간 〈미술과 역사 사이에서〉는 한국미술에 대한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의 수상록이다. 불교조각을 전공한 미술가가 단지 자신의 전공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회화 불교건축 등도 함께 연구했다. 한 유적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 불교사상과 신앙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술과...〉는 한 미술가의 삶의 궤적, 정신적 학문적 모색과 체험과정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유적과 유물에 큰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묘사 비평하고 있다. 또한 고대미술에 대한 탄탄한 안목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특히 회화·영화·사진 등에 대한 심미적 비평을 시도하고 있다. 김홍도에 대한 연구, 장욱진 박수근에 대한 연구 등이 바로 그것.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종교 철학 문학 과학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삶의 체험에 근거한 예술의 이해와 감상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즉 종합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열화당, 200쪽, 1만8천원.

'99종교지도자 세미나 자료집 출간

'99종교지도자 세미나 자료집이 나왔다. 이 자료집은 한국종교인문화회의(KCRP·회장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가 지난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새천년을 위한 한국종교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렇듯 새천년준비위원장의 기초강연과 이재정 성공회대학교 총장의 '민족공동체의 미래와 종교',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의 '종교와 생명문화' 제목의 주제발표와 토론에 대한 답변 및 질의응답을 각각 실고 있다. 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종교의 역할, 새천년 통일민족사회에 공동체 문화, 종교와 생명윤리, 생명보존 운동의 실제와 과제 등에 대한 각 분임별 발표와 토의결과도 수록하고 있다. 비매품.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망 역시이론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영가천도	일타	효림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정	동쪽나라
3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싶다	최인호	여백
4	자 떠나자 원효찾으러	장희욱	시공사
5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6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참자시대
7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	주민환	정우사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타스님	불교시대사
9	문무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여시어문
10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찬주	해들누리

구입문의: (02)737-0695

청산에 묻힌 보궁을 찾아

박명자 지음

5대 보궁서 만난 자연과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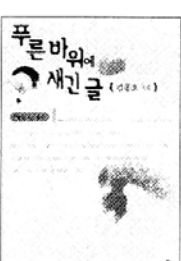


사리신앙의 핵심인 5대적멸보궁, 신간 〈청산에 묻힌 보궁을 찾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불사리 신앙을 형성하며 현재의 5대 적멸보궁으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1부 사리의 전래와 우리나라 불사리 신앙의 핵심을 형성한 자장율사의 삶(삼국유사) 〈동사열전〉 〈속고승전〉 등의 기록을 통해 추적해 가고 있다. 2부는 통도사, 봉정암, 법흥사, 오대산 중대,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의 기행을 통해 각 사찰이 가진 뛰어난 건축미와 절을 둘러싸고 깃들인 갖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절을 찾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에 대한 애정이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저자 박명자, 중앙출판, 200쪽, 7천원.

푸른 바위에 새긴 글

김홍호 지음

신학대 교수가 쓴 벽암록 해설



감리교신학대학 종교철학과 교수인 김홍호 목사가 선가의 최고의 어록인 벽암록에 담긴 참 뜻을 풀어낸 해설서 〈푸른 바위에 새긴 글〉을 내놓았다. 저자는 "단지 무뎠던 경문 풀이를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벽암록〉에 담긴 진리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일화로 풀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을 따라 읽다보면 어렵게만 생각했던 선가의 화두가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이 책은 도서출판 숲에서 펴내고 있는 '김홍호 전집' 가운데 유학의 대가 왕양명의 〈견습록〉을 풀이한 〈양명학 공부 1·2〉와 수상집 〈생각 없는 생각〉에 이어 세번째 권. 200쪽, 9천8백원.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롱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롱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49세
법사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문의처: 원이서, 문음, 순천사로, 안력수습서, 연인애매음, 느릅나무.



우롱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롱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교맥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전화 : 587 6612 · 팩스 : 586 9078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한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범포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